

후배들 앞에 서는 KIA 최지민 “좌절하지 마라”



오늘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 강사로 참가
“프리미어12 뛰며 ‘자신감’의 중요성 깨달아”

KIA 타이거즈의 좌완 최지민이 2025 신인들을 만나 “좌절 금지”를 이야기한다.

KBO는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KBO 리그에 첫발을 내딛는 10개 구단 소속 신인선수과 육성선수 등 13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셸프 멘탈 코칭과 부상 교육, 부정행위 방지와 스포츠 윤리 교육 등이 진행된다.

‘레전드’ 박용택 해설위원은 소양 교육 강사로 나서 자기관리 노하우와 프로선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한다. KIA 최지민도 NC 김휘집과 행사장을 찾아 프로 무대와 국제 경기에서의 활약 비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프로 4년 차 최지민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참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최지민이 프로에 입단한 2022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시즌에는 행사 초청을 받았지만 개인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최지민은 프로 첫 우승과 프리미어 12라는 또 다른 국가대표 경험을 더해 후배들 앞에 서게 됐다.

최지민은 “한번 못 던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못 던지더라도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하던 대로 하다가 보면 팬들이 진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당당히 국가대표 선수가 돼 후배들을 만나게 됐지만, 최지민에게도 좌절의 시간이 있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시작한 프로 첫해 최지민은 6경기에 나와 6이닝을 소화하면서 13.50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최지민은 시즌이 끝난 뒤 질롱 코리아 소속으로 호주 리그에 참가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최지민은 “첫해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힘들기도 했는데, 구단에서 기회를 주면서 질롱코리아도 다녀오고 손승락 코치님처럼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좌절의 순간을 딛고 2023시즌 팀의 필승조로 발돋움한 최지민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서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그만큼 20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지민은 “지난 시즌에도 좌절하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다. ‘작년에는 이만큼 던졌는데’라는 생각이 많아서, 결과가 좋지 못하니 위축됐던 것 같다. 기술적으로도 허체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볼넷 안 주려고 하다 보니 상체로 밀어 넣는 공을 던졌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규시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는 프리미어12 대표팀 활약으로 다시 한번 ‘자신감’의 중요성을 느꼈다.

최지민은 “대표팀은 항상 좋은 기회다. 대표팀에서 잘 던지면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 같다. 페넌트레이스보다는 단기전이라 더 집중하게 되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라 자부심도 특별한 것 같다. 10개 구단 팬들이 보고 계시니까 더 많은 책임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다. 대표팀에 가면 더 그런 느낌이 든다”며 “대표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비시즌에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자신감’의 힘을 배운 최지민은 ‘우승 구역’을 목표로 2025시즌을 맞을 계획이다.

최지민은 “올해 한 번 더 우승하고 싶다. 지난해 팀이 우승은 했지만 내가 우승 구역은 아니었다. 올 시즌에는 더 많은 경기에서 잘 던져서, 우승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싶다. 그걸 시즌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베트남 축구 또 한국감독 ‘매직’

김상식호, 미쓰비시컵 우승
동남아 최강 태국에 3-2 승



‘김상식호’ 베트남이 동남아 최강 태국을 무너뜨리고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 2024 미쓰비시컵(이하 미쓰비시컵) 챔피언에 올랐다.

김상식(사진)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은 5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태국과 3-2로 승리했다.

지난 3일 홈인 베트남 푸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1차전에서 2-1로 이긴 베트남은 합계 5-3으로 앞서며 우승을 확정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2018년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로 동남아축구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처음 나선 미쓰비시컵에서 우승을 지휘해내며 주가를 한껏 높였다.

무려 6년 동안 베트남을 이끈 박 감독처럼 ‘장기 집권’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김 감독은 더불어 ‘사령탑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일본 출신의 이시야 마사타다 감독이 이끄는 태국은 대회 3연패이자 통산 8차례 우승 도전이 불발됐다. /연합뉴스

3125만9508달러

임성재 PGA 통산 상금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3000만달러를 돌파했다.

임성재는 6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끝난 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최종 합계 29언더파 263타를 치고 단독 3위에 올랐다.

상금 136만달러(약 20억원)를 받은 임성재는 투어 통산 상금 3125만9508달러를 기록했다. 임성재의 통산 상금은 458억4000만원 정도다.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왕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182개 대회에 출전해 두 번 우승했고, 준우승은 5번 차지했다.

임성재는 PGA 투어 통산 상금 순위에서는 57위에 해당한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가 3280만3596달러를 벌며 49위에 올라 있다.

PGA 투어에서 상금 3000만달러를 넘게 번 선수는 총 60명이다.

통산 상금 1위는 타이거 우즈(미국)의 1억 2099만9166달러다. 1억 달러를 넘긴 선수는 우즈가 유일하다.

2위는 LIV 골프로 이적한 필 미켈슨(미국)으로 9668만5635달러를 벌었고,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9098만 9348달러로 3위다. /연합뉴스

파리 생제르맹, 슈퍼컵 3연패...이강인 4번째 우승컵

AS모나코에 1-0 승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67분을 뛴 파리 생제르맹(PSG)이 AS모나코를 꺾고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에서 통산 1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PSG는 6일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4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우스만 덴벨레의 ‘극장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PSG는 1995년 시작된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통산 13번째 우승을 맞았다. PSG는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이다.

트로페 데 샹피옹은 프랑스 리그1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다.

PSG는 2023-2024시즌 리그1 챔피언이고, AS모나코는 2023-2024 리그1 준우승팀이다.

다만 PSG가 2023-2024 쿠프 드 프랑스마저 제패해 리그1 준우승팀인 AS모나코가 대회에 나섰다.

2024 트로페 데 샹피옹은 애초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돼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치러졌다.

지난해 대회에선 결승골을 넣고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 후반 22분 교체될 때까지 한 차례 유효슈팅과 4차례 키패스를 비롯해 83%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정규리그 1회·쿠프 드 프랑스 1회·트로페 데 샹피옹 2회)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다.

이날 데지레 두에, 덴벨레와 함께 스트리클 공격라인을 이룬 이강인은 전반전에 세트피스 전담 키커



이강인 등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6일(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4 트로페 데 샹피옹 경기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았다.

이강인은 전반 3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직접 슈팅 대신 비티나에게 살짝 볼을 밀어줬고, 비티나가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도움 기회를 놓쳤다.

이강인은 전반 41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를 때렸지만 몸을 던진 골키퍼 손끝에 볼이 스치며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날랐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이강인은 후반 22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교체돼 67분의 활약을 마치고 벤

치로 복귀했다.

무승부의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추가시간 PSG는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하던 덴벨레가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극장골’을 터트리며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아시안컵 프리킥골 ‘올해의 골’

대한축구협회, 팬투표 결과 발표
亞컵 호주와 8강 ‘올해의 경기’

축구 대표팀 ‘캡틴’ 손흥민이 2년 연속 대한축구협회(KFA) 올해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터뜨린 프리킥골이 팬들이 선정한 ‘최고의 골’이 됐다.

KFA는 6일 팬들이 직접 뽑은 ‘2024년 KFA 올해의 경기’와 ‘2024년 KFA 올해의 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5-26일 축구협회 마케팅 플랫폼 ‘PlayKFA’를 통해 진행됐으며 회원 2607명이 경기 부문 8개, 골 부문 10개 후보에 대해 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 지난 2024년 2월 한국대표팀이 호주와 벌인 아시안컵 8강전(2-1승)이 64%의 득표율로 ‘올해의 경기’가 됐다. 이 경기에서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역전 결승골은 득표율 48.8%로 ‘올해의 골’에 선정됐다.

아시안컵 당시 대표팀은 전반 41분 크레이그 쿨

인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표팀은 연장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골’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그는 2026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2차예선 싱가포르와의 홈경기에서 나온 왼발 감아차기골(중거리슛 득점)로 최다 득표율 44%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의 경기 2위는 월드컵 3차예선 쿠웨이트전(3-1승-지난 11월 14일)으로 1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치러진 월드컵 3차예선 이라크전(3-2승-지난 10월 15일)이 12.7%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올해의 골 투표에서는 6월 6일 열린 월드컵 2차예선 싱가포르전에서 단독 돌파로 수비수 3명을 제친 이강인의 골이 23.2%로 2위, 1월 30일 치러진 아시안컵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나온 조규성의 골이 3위(10%)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손흥민이 연장전에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왼쪽에는 기뻐하는 클린스만 감독. /연합뉴스